

제 1 교시

국어

수험번호 ()

성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다음 상황에서 ㉠에 어울리는 위로의 말은?



- ① “네 잘못이 커!”
- ② “누가 거기 서 있으래?”
- ③ “너, 엄살이 너무 심하구나.”
- ④ “괜찮아? 아픈 건 좀 어떠니?”

2. 듣는 이를 고려하여 말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 말한다.
- ② 듣는 이가 처한 상황을 배려하여 말한다.
- ③ 듣는 이의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
- ④ 듣는 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말한다.

3. 다음 중 무엇인가를 묻는 문장은?

- ① 쓰레기를 버립시다. ② 꽃이 참 아름답구나!
③ 봄에는 개나리가 핀다. ④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4. 밑줄 친 낱말이 ‘일손’의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수돗가에서 손을 씻었다.
- ② 손에 낀 반지가 참 예쁘다.
- ③ 손이 시려서 장갑을 끼었다.
- ④ 요즘 농촌에서는 손이 많이 모자란다.

5. 문장의 호응 관계가 바른 것은?

- ① 바람이 세차게 내린다.
- ② 내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른다.
- ③ 나는 동생보다 키가 더 무겁다.
- ④ 숲 속에서 다람쥐가 지저귀고 있다.

6. ㉠에 들어갈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속담에 “(㉠)”라는 말이 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도우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① 말이 씨가 된다.
-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쫄쫄이 양말

권영상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으려고 보니
양말이 ㉠ 짜짜이다.
짜짜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하루를 지냈다.
오늘 하루, 양말은
내 두 발이 땀남인 줄 알았겠다.
발을 모을 때마다
㉡ 얼마나 서먹서먹했을까?

7. ㉠의 뜻으로 옳은 것은?

- ① 내 짝꿍 ② 짝이 다름 ③ 박수 소리 ④ 캐스터네츠

8. ㉠과 같이 생각한 이유는?

- ① 양말의 짝이 달라서
- ② 두 발이 서로 싸워서
- ③ 두 발의 크기가 달라서
- ④ 두 발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9. 다음 글을 표로 정리할 때 ㉠에 알맞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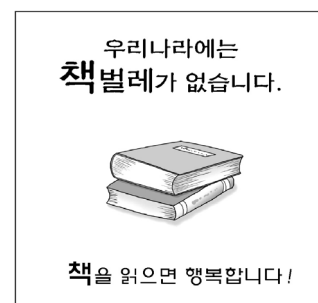
경기 민요는 서정적이고 부드러우며 맑고 경쾌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대표 민요로 「넝리리야」, 「군밤 타령」 등이 있습니다.



경기 민요의 특징	대표 민요
서정적이고 부드러우며 맑고 경쾌한 느낌	널리리야, (㉠)

- ① 농부가 ② 새 타령
③ 군밤 타령 ④ 도라지 타령

10. 다음 광고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을 즐겨 읽자.
- ② 자연을 보호하자.
- ③ 나무를 많이 심자.
- ④ 음식을 남기지 말자.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는 하늘을 날기에 알맞은 몸을 가지고 있다. 새는 매우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뼈와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몸을 띄우기가 쉽다. 그리고 새의 날개는 앞쪽이 두껍고 뒤쪽이 차차 얇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 몸을 띄우는 힘인 ‘양력’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새는 가슴 근육부터 날개 뼈까지 이어져 있는 힘센 근육을 지니고 있어 강한 날갯짓을 할 수 있다.

11. 위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새의 몸 ② 새의 먹이
③ 새의 종류 ④ 새가 사는 곳

12. 의 낱말 중 고유어가 아닌 것은?

- ① 하늘 ② 몸 ③ 새 ④ 형태

13.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원에 쓰레기가 많아서 매우 지저분합니다.

- ① 공원에 농구대를 설치한다.
② 공원에 쓰레기통을 놓는다.
③ 공원 청결 캠페인을 벌인다.
④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한다.

14. 다음 글에서 글쓴이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침에 우산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 우산을 두고 내린 것을 알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우산은 내 단짝 친구가 준 선물이기에 무척 아꼈던 것이었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밥도 먹기가 싫었다. 잃어버린 우산이 자꾸 떠올랐다.

- ① 반가움 ② 속상함 ③ 신기함 ④ 즐거움

1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주장: 도서관에서 뛰어다니지 말자.

근거: ○ (㉠)

- 먼지가 생겨 건강에 좋지 않다.
○ 책을 읽는 친구에게 방해가 된다.

- ① 뛰어다니다가 부딪히면 다칠 수 있다.
② 고운 말을 쓰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 진다.
③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④ 가족 간의 대화와 화목은 아침 식탁에서 싹튼다.

16. 높임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생님, 감사합니다.
② 동생이 노래를 부르신다.
③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④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17. 다음 밑줄 친 ㉠과 같은 뜻의 낱말은?

㉠ 이튿날 새벽,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하여 우도봉에 올랐다. 해가 뜨기 전이라 그런지 어두워서 주변은 잘 보이지 않았고, 고깃배들의 불빛만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 ① 어제 ② 오늘 ③ 다음날 ④ 요즈음

18. 밑줄 친 ㉠~㉣ 중 기본형은?

- 달이 ㉠ 밝게 빛난다.
○ ㉡ 밝은 달이 높이 떠올랐다.
○ 한가위에는 달이 무척 ㉢ 밝다.
○ 달이 ㉣ 밝으니, 사방이 환히 보인다.

- ① ㉠ ② ㉡ ③ ㉢ ④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쌀쌀한 가을날, 유럽의 어느 도시였습니다. 왕자의 동상 밑에서 자고 가려던 제비의 이마 위에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이상한 생각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고 별이 총총한데 빗방울이 떨어지다니…….”

(나)

때: 쌀쌀한 가을의 어느 날
장소: 유럽의 어느 도시
등장인물: 제비, 왕자의 동상

제1장 광장

제비: (이마에 떨어진 물을 훔친다.) 또 물이 떨어진다.

제비: (㉠) 참, 이상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고 별이 총총한데 빗방울이 떨어지다니…….

19. (가)를 (나)로 바꾸어 쓸 때 ㉠에 알맞은 말은?

- ① 눈물을 흘리며
② 신발을 벗으며
③ 하늘을 쳐다보며
④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20. (나)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연극을 하기 위해 쓴 글
②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쓴 글
③ 여행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 쓴 글
④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 쓴 글